

##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 :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

이 희 영\* · 최 태 진\*\*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442명이었다. 연구참가자들에게 1) 간단한 개인 신상 조사지, 2) 심리적 분리 검사, 3) 대학생활적응 검사 및 4)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상관계수의 차이 검증 및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일반적 독립은 남학생의 정서적 적응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2)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일반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간의 관계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적응 영역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의해 차별적인 중재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갈등적 독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년 발달 이론 및 상담 실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심리적 분리, 대학생활적응, 개인주의-집단주의

---

\* 부경대학교 교수

\*\* 부산대학교 강사

## I. 서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발달과업(Erikson, 1968)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수행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향후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Okun, 1984). 많은 이론가들(예, Bloom, 1980)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적 기능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심리적 분리의 역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Blos(1967)이다. Mahler, Pine과 Bergman(1975)의 유아 심리 분리 이론에 기초하여, Blos는 청소년들은 Mahler 등에 의해 기술된 유아의 개별화 과정과 유사한 개별화 과정을 경험한다고 가정하면서 건강한 심리적 발달은 대체로 이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다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할 필요성은 가족체제 이론가들(예, Bowen, 1978)에 의해서도 또한 강조되었다. 정신분석학적 이론가들과는 달리, 가족체제 이론가들은 분리-개별화 과정의 정신내적 측면보다도 가족 교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체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분리 과정은 청소년들이 분리하고자 하는 가족체제내의 분화 수준과 관련된다(Anderson & Sabatelli, 1990). Bowen에 의하면, 전체 가족은 미분화-분화의 연속선상에서의 분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분화 능력은 가족의 분화 수준에 달려 있다. 즉, 잘 분화되지 못한 가족은 정신적인 분리-개별화 과정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반면에 잘 분화된 가족은 이 과정을 촉진시킨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가족체제 이론은 상이한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부모-청소년 분리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Hoffman(1984)에 의해 심리적 분리 검사가 개발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Hoffman(1984)은 유아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심리적 분리를 4가지 측면(부모로부터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 갈등적 독립)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심리적 분리 검사는 이들 4가지 차원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여기서 태도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믿음, 가치 및 태도와 부모의 믿음, 가치 및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과도한 승인욕구, 정서적 지지, 밀접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자유스러운 정도를,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신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불신, 분개,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이 검사를 사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적 분리의 역할을 정체감 발달(Palladino & Blustein, 1994a), 진로성숙(Lee & Hughey, 2001)), 자존감(McCurdy & Scherman, 1996) 등을 포함한 청소년 발달과 적응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검토해 왔으나 그 중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이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대학생활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생애 처음 경험하는 중요한 전환기인데, 이러한 전환의 성공 여부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라는 과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Sullivan & Sullivan, 1980). 이러한 이론적 견해를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심리적 분리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토해왔다. 연구 결과 심리적 분리의 네 가지 측면 중 갈등적 독립은 대체로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다른 세 가지 측면(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과 일관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는 여전히 명료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의 본질을 명료화하기 한 가지 방안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성의 중재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하다는 견해는 여성의 심리 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예, Gilligan, 1982)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은 심리적 분리 정도를 청소년 발달 및 적응의 준거로 보는 관점은 여성의 심리 발달에 필수적인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무

시한다고 비판한다. Josselson(1988)에 의하면, 여성의 분리-개별화 과정은 '분리'나 '자율'보다는 '공유'(communion)나 '관계'(connectedness)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즉,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여성보다는 남성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아래 많은 연구들(정은희, 1992; 진수경; 1995;

Lapsley, Rice & Shadid, 1989;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1988; Rice, 1992; Palladino & Blustein, 1994b; Rice, Cole & Lapsley, 1990)이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Palladino와 Blustein은 성별에 따른 갈등적 독립 및 태도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남자에게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Lapsley 등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또한 성에 따른 심리적 분리의 정도 차이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양상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영향에 대한 성의 중재 역할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성차를 보다 적절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수준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의 본질을 명료화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안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백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연구 결과가 문화적 특징을 달리하는 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몇몇 학자들(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역할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있어서의 심리적 분리의 역할은 문화적 특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Rodriguez와 Bernstein(1995)은 히스패닉계 미국인

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독립이 아닌 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i(2002)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몇 편의 연구(신지영, 2000; 정은희, 1992; 진수경, 1995)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갈등적 독립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능적, 정서적, 태도적 독립은 대체로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의 심리적 분리의 역할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구로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문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분석 틀이 필요하다.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은 문화를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은 Hofstede(1980) 이후 지속적인 이론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문화에 따른 동기, 정서, 사고, 행동, 가치, 자기인식에 대한 차이 등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율성, 독립심, 개인의 목표와 신념, 개인적 만족, 집단의 결속에 대한 낮은 관심, 정서적인 거리감 등(Hue, 1988; Schwartz, 1994;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이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대한 깊은 관심,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된 사회적·개인적 정체감의 형성, 정서적 지지,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 건전한 대인관계, 가족의 안녕,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등(Hofstede, 1991; Hue, 1988; 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88)이 일차적인 특징으로 지적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틀은 문화간 비교를 위한 이론으로써 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에 속해있는 개인의 행동, 태도 또는 사고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개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Triandis 등(1988)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개인차를 나타내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의 틀을 개인 차원에서 개인주의 성향자(idiocentrism)와 집단주의 성향자(allocentrism)로 구분하였고, 이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김은진, 2001; 한규석, 1991; 한성열 · 이흥표, 1995; Chung, 1994;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개인이 지니는 동조성향, 소외감, 고립감, 아노미 등의 현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주의-집단주의 틀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심리적 분리 및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시킨 연구는 Choi(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없다. Choi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차원에 의해 중재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집단주의자라는 가정 아래 문화간 비교차원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개인내 차원으로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향은 다를 수 있다. 둘째, 부모 및 남녀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예, 정은희, 1992; Lapsley et al., 1989)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가 부모, 남녀 및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문헌 고찰 및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성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보다 명료화해 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수준과 대학생활적응수준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수준과 대학생활적응수준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수준과 대학생활적응수준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부산 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42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24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참가자가 정상가정(부모가 결혼해서 현재 함께 사는 가정) 출신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참가자가 자신의 부모와 가지는 심리적 분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가정 출신이 아닌 50명의 자료 또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368명(남학생 187명, 여학생 18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18~27세의 분포를 보였고, 학년 분포는 1학년 218명(59.0%), 2학년 79명(21.5%), 3학년 37명(10.1%), 4학년 34명(9.2%)이었다.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03년 9월 23일에서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 1) 심리적 분리 검사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측정하

기 위하여 Hoffman(1984)이 개발한 심리적 분리 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우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SI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은 22문항을 제외(예, 소수 민족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아버지의 견해와 유사하다)하고 1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Rice 등(1990)은 요인 분석을 통해 심리적 분리 과정에는 두 가지 상이한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차원은 PSI의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일반적 독립이고, 다른 한 차원은 분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반영하며 PSI의 갈등적 독립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이들은 심리적 분리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을 연구하는 데 보다 유용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분리를 일반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PSI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PSI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네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하여 .88에서 .92의 범위에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93, .89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92, .89이었다.

## 2) 대학생활적응 검사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984)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활적응 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정은희(1992)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및 기관애착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적응(24 문항)은 대학생활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한 측면을, 사회적 적응(20문항)은 대학생활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구의 다양한 측면을, 개인-정서적 적응(15 문항)은 학생의 심리



적·신체적 상태를 그리고 기관 애착(15 문항)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 척도 중 사회적 적응 척도와 개인-정서적 적응(이하 정서적 적응)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SACQ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9)'까지의 Likert식 9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척도 및 각 하위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8~.92의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81, .84이었다.

### 3) 개인주의 - 집단주의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에 의하여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ICOL)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NDICOL은 전체 3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8문항으로 구성된 4가지 하위척도(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하위 4개 척도를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로만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각 연구대상별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에 따른 점수를 산출한 다음,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차원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자 혹은 집단주의 성향자로 구별하였다. INDICOL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의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한다. Singelis 등에 의해 보고된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67, .74, .74, .68이었고,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는 개인주의 척도는 .82 집단주의 척도는 .83이었다.

## 3. 자료분석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심리적 분리 점수와 대학생활 적응 점수와의 상관계수의 산출 및 심리적 분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산출된 상관계수에 대하여 남녀간 차이검증(Fisher의  $z'$ 검증)과 함께 중다회귀분석 결과의  $R^2$  크기와  $\beta$ 값을 비교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을 위하여 앞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점수와 대학생활적응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시 상관계수의 차이검증과  $R^2$  값 및  $\beta$ 값을 비교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문제 1과 이들 관계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리적 분리 수준과 대학생활적응 수준간의 상관분석 및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및 <표 2>와 같다(다만 <표 1>에는 편의상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한 Fisher의  $z'$ 검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연구문제 1에만 초점을 두고 결과를 살펴본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상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성별, 심리적 분리 하위영역 및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와 모간의 구별에 따라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 독립은 남학생에게서만 정서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부 $r=.248$ , 모 $r=.306$ ,  $p<.01$ )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적 독립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적응( $r=.351\sim.401$ ,  $p<.01$ ) 및 사회적 적응( $r=.191\sim.305$ ,  $p<.01$ )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독립수준이 높을

수록 정서적 적응 수준이 높으며, 갈등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에서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심리적 분리수준과 대학생활 적응수준과의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대상	구분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남(N=181)	여(N=175)	Z	남(N=181)	여(N=175)	Z
부	일반적 독립	.248** (.253)	-.065 (-.065)	3.18***	-.126 (-.127)	-.129 (-.130)	0.03
	갈등적 독립	.361** (.378)	.351** (.366)	0.12	.191 (.193)	.298** (.307)	1.14
모	일반적 독립	.306** (.316)	-.067 (-.067)	3.83***	.015 (.015)	-.115 (-.116)	1.31
	갈등적 독립	.401** (.425)	.374** (.392)	0.33	.221** (.225)	.305** (.315)	0.90

주. ( )는 r에 대한 Fisher의 z'계수 \*p<.05 \*\*p<.01 \*\*\*p<.001

<표 2> 심리적 분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계층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성별에 따른 분석

	투입변인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t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t	
남학생	부	갈등적 독립	.350	.122	.122	.350	4.94***	.177	.026	.031	.177	2.37*
		일반적 독립	.445	.198	.076	.076	4.06***	.214	.046	.014	-.120	1.62
	모	갈등적 독립	.407	.166	.166	.407	5.88***	.234	.055	.055	.234	3.15**
		일반적 독립	.471	.222	.056	.241	3.54**	.235	.055	.001	-.023	.30
여학생	부	갈등적 독립	.340	.116	.116	.340	4.70***	.294	.086	.086	.294	3.96***
		일반적 독립	.343	.118	.002	-.046	.64	.314	.099	.013	-1.52	1.52
	모	갈등적 독립	.151	.146	.151	.388	5.48***	.301	.091	.091	.301	4.07***
		일반적 독립	.154	.144	.003	-.059	.83	.324	.105	.014	-.119	1.61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분리는 하위 영역과 성별에 따라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과 서로 다른 정도의 공통변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의 경우 부모나 성별에 따라 정서적 적응과는 11.6~16.6%의 공통변량을, 사회적 적응과는 3.1~9.1%의 공통변량을 보여 다소의 차이

를 보이긴 하나 공통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독립의 경우, 정서적 적응과는 0.2~7.6%, 사회적 적응과는 0.1~1.4%의 공통변량을 보임으로써 정서적 적응의 경우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나 여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적 적응의 경우 일반적 독립은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갈등적 독립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두 영역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일반적 독립의 경우 성별 및 대학생활 영역에 따라 상이한 관계가 있었다.

## 2.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Fisher의  $z'$  계수에 의한 상관관계수 차이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모(2), 심리적 분리 영역(2) 및 적응 영역(2)에 따른 8개 세부항목 중 2개 항목 즉, 부와 모의 일반적 독립과 대학생활의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에서만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관계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 수준과 정서적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관관계수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이(남 $r = .361 \sim .401$ , 여 $r = .351 \sim .374$ ), 갈등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여학생이(남 $r = .191 \sim .221$ , 여 $r = .298 \sim .305$ )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2), 심리적 분리 영역 및 적응영역(2)에 따른 8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는 남녀 학생간 유사한 결과를, 2개 영역에서는 남녀 학생간 다소의 차이를, 그리고 나머지 2개 영역에서는 보다 뚜렷한 남녀 학생간 차이를 보였다. 유사 결과 영역, 다소의 차이를 보인 영역, 그리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 영역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있어서 부

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부R2=12.2%, 모R2=16.6%)은 여학생에 있어서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부R2=11.6%, 모R2=15.1%)과 유사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 수준은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 수준과 거의 무관하였다(부모 및 남녀에 따라 R2=0.0~1.4%의 범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써 남학생(부R2=3.1%,  $\beta=.18$ , 모R2=5.5%,  $\beta=.23$ )에 비하여 여학생(부R2=8.6%,  $\beta=.29$ , 모R2=9.1%,  $\beta=.30$ )이 다소 높은 설명 변량을 보였다.

한편,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보다 뚜렷했다. 즉, 남학생의 경우(부R2=7.6%,  $\beta=.35$ , 모R2=5.6%,  $\beta=.24$ ) 여학생(부R2=0.2%,  $\beta=-.05$ , 모R2=0.3%,  $\beta=-.06$ )에 비해 보다 높은 설명 변량을 나타냄으로써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수준에 따라 정서적 적응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R2계수 및  $\beta$ 계수로 볼 때 사실상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수준과 정서적 적응 수준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차이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을 개인주의 성향자 집단과 집단주의 성향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에 상관분석 및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남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 및 차이검증

성별	대상	구분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주의 성향자 (N=남56, 여56)	집단주의 성향자 (N=남121, 여120)	Z	개인주의 성향자 (N=남56, 여56)	집단주의 성향자 (N=남121, 여120)	Z
남학생	부	일반적 독립	.346** (.361)	.273** (.280)	0.49	-.048 (-.048)	-.141 (-.041)	0.04
		갈등적 독립	.423** (.452)	.344** (.359)	0.56	.313* (.324)	.117 (.118)	1.25
	모	일반적 독립	.452** (.488)	.270** (.277)	1.28	.041 (.041)	.016 (.016)	0.15
		갈등적 독립	.431** (.461)	.385** (.406)	0.32	.307* (.318)	.166 (.168)	0.91
여학생	부	일반적 독립	.026 (.026)	-.028 (-.028)	0.33	-.083 (-.083)	-.102 (-.102)	0.12
		갈등적 독립	.232 (.236)	.414** (.441)	1.24	.260 (.266)	.298 (.308)	0.25
	모	일반적 독립	-.073 (-.073)	.013 (.013)	0.52	-.072 (-.072)	-.082 (-.082)	0.06
		갈등적 독립	.250 (.255)	.427** (.457)	1.22	.226 (.230)	.315** (.326)	0.58

주. ( )는 r에 대한 Fisher의 z'계수 \*p<.05 \*\*p<.01 \*\*\*p<.001

<표 4> 심리적 분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계층적  
중다회귀분석 결과-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자별 분석

	투입변인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t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t	
남학생	전 체	갈등적 독립	.350	.122	.122	.350	4.94***	.177	.026	.031	.177	2.37*
		일반적 독립	.445	.198	.076	.076	4.06***	.214	.046	.014	-.120	1.62
		개인주의 성향자	.372	.138	.138	.372	2.78**	.296	.087	.087	.296	2.19*
		일반적 독립	.562	.316	.177	.428	3.49**	.296	.087	.000	-.003	.02
	집단주의 성향자	갈등적 독립	.347	.120	.120	.347	3.99***	.103	.011	.011	.103	1.10
		일반적 독립	.454	.207	.087	.295	3.55**	.174	.030	.020	-.140	1.51
		개인주의 성향자	.407	.166	.166	.407	5.88***	.234	.055	.055	.234	3.15**
		일반적 독립	.471	.222	.056	.241	3.54**	.235	.055	.001	-.023	.30
모	개인주의 성향자	.457	.209	.209	.457	3.53**	.328	.107	.107	.328	2.40*	
	일반적 독립	.594	.553	.144	.385	3.20**	.328	.108	.000	-.016	.12	
	집단주의 성향자	.382	.146	.146	.382	4.45***	.183	.033	.033	.183	1.97	
	일반적 독립	.445	.198	.052	.229	2.73**	.183	.033	.000	-.003	.03	
여학생	전 체	갈등적 독립	.340	.116	.116	.340	4.70***	.294	.086	.086	.294	3.96***
		일반적 독립	.343	.118	.002	-.046	.64	.314	.099	.013	-1.52	1.52
		개인주의 성향자	.232	.054	.054	.232	1.72	.260	.068	.068	.260	1.94
		일반적 독립	.235	.055	.001	-.035	.26	.270	.073	.005	-.074	.55
	집단주의 성향자	갈등적 독립	.403	.163	.163	.403	4.66***	.294	.086	.086	.294	3.21**
		일반적 독립	.404	.163	.000	-.016	.18	.307	.094	.008	-.089	.98
		개인주의 성향자	.151	.146	.151	.388	5.48***	.301	.091	.091	.301	4.07***
		일반적 독립	.154	.144	.003	-.059	.83	.324	.105	.014	-.119	1.61
모	개인주의 성향자	.289	.084	.084	.289	2.16*	.218	.048	.048	.218	1.60	
	일반적 독립	.302	.091	.007	-.085	.63	.233	.054	.007	-.082	.60	
	집단주의 성향자	.438	.191	.191	.438	5.15***	.316	.100	.100	.316	3.48**	
	일반적 독립	.438	.192	.000	.020	.24	.329	.108	.008	-.091	1.00	

주. \*p<.05 \*\*p<.01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pha=.05$ 의 유의수준에서 볼 때 남녀 모두에 게 있어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의 차이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첫째,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Fisher의  $z'$  계수에 기초한 검증방식의 특징과 관계가 있다. \* 둘째, 실용적인 가치라는 의미에서 상관계수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는 비교적 뚜렷한 상관계수의 크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의 모와의 일반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자는  $r=.45$ 이었으나, 집단주의 성향자는  $r=.27$ 이었다. 셋째, 부모(2), 심리적 분리 유형(2) 및 대학생활 적응영역(2)에 따른 세부 8영역에서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는 상관계수에서 그 차이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 부모(2)와 심리적 분리 유형(2)에 따른 정서적 적응과 관련한 하위 4영역 모두에서 개인주의 성향자는 집단주의 성향자에 비하여 일관되게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갈등적 독립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자는 집단주의 성향자에 비해 상관계수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비록 일반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역시 갈등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자가 개인주의 성향자에 비해 상관계수가 일관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가 개인이 지닌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어서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는 부모(2), 심리

\*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위한 공식

$$Z = \frac{z'_1 - z'_2}{\sigma_{z'_1 - z'_2}} \quad \text{단, } \sigma_{z'_1 - z'_2} = \sqrt{\frac{1}{N_1 - 3} + \frac{1}{N_2 - 3}}$$

에서 Z값은 특히 사례수에 민감하다. 예컨대 표3에서 남학생 개인주의 성향자( $N_1=56$ )과 집단주의 성향자간( $N_2=120$ )간에는 어머니로부터의 일반독립 수준과 정서적 적응간의 상관계수의 차이는  $Z=1.28$ 이었으나, 사례수가 각각 200명이라면  $Z=4.03$ 이 되어 .0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적 분리 유형(2) 및 대학생활적응 영역(2)에 따른 8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 유사한 결과를, 2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 다소의 차이를, 그리고 마지막 4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유사결과 영역, 다소의 차이를 보인 영역, 그리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 영역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주의 성향자(부R2=0.0%, 모R2=0.0%)와 집단주의 성향자(부R2=0.02%, 모R2=0.0%)간에 차이가 없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인 영역은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써 정서적 적응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자(부R2=13.8%,  $\beta=.37$ , 모R2=20.9%,  $\beta=.46$ )가 집단주의 성향자(부R2=12.0%,  $\beta=.35$ , 모R2=14.6%,  $\beta=.38$ )에 비하여 다소 높은 설명변량을 보여 주었다.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일반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적 독립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부R2=8.7%,  $\beta=.30$ , 모R2=10.7%,  $\beta=.33$ )가 집단주의 성향자(부R2=1.1%,  $\beta=.10$ , 모R2=3.3%,  $\beta=.18$ )에 비하여 보다 높은 설명변량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개인주의 성향자(부R2=17.7%,  $\beta=.43$ , 모R2=14.47%,  $\beta=.39$ )가 집단주의 성향자(부R2=8.7%,  $\beta=.30$ , 모R2=5.2%,  $\beta=.23$ )에 비해 보다 높은 설명변량과 보다 큰  $\beta$ 계수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는 부모(2), 심리적 분리 유형(2) 및 대학생활적응영역(2)에 따른 8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 유사한 결과를, 2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 다소의 차이를, 그리고 마지막 2개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자간에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결과 영역, 다소의 차이를 보인 영역, 그리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 영역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개인주의 성향자에 있어서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은 집단주의 성향자에 있어서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동일하게 부모(2)와 적응 영역(2)의 4영역에 걸쳐 모두  $R^2=0.0\sim 0.8\%$  정도의 범위를 지님으로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부모의 갈등적 분리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으로써 개인주의 성향자(부 $R^2=6.8\%$ ,  $\beta=.26$ , 모 $R^2=4.8\%$ ,  $\beta=.22$ )가 집단주의 성향자(부 $R^2= 8.6\%$ ,  $\beta=.29$ , 모 $R^2=10.0\%$ ,  $\beta=.32$ )에 비하여 다소 낮은 설명변량을 보였다.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와 집단주의 성향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자(부 $R^2=5.4\%$ ,  $\beta=.23$ , 모 $R^2=8.4\%$ ,  $\beta=.29$ )가 집단주의 성향자(부 $R^2=16.3\%$ ,  $\beta= .40$ , 모 $R^2=19.1\%$ ,  $\beta =.44$ )에 비하여 보다 낮은 설명변량을 나타내었다.

계층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 및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집단주의 성향자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와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역할을 밝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의 결과는 심리적 분리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분리의 하위 영역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반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 모두 대학생활적응과 유의

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 독립은 정서적 적응하고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반면 갈등적 독립은 사회적 적응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이들이 부모로부터 태도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느냐(일반적 독립) 보다는 분리 이후에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의 감정으로 부터 자유로운 정도(갈등적 독립)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신지영, 2000; 정은희, 1992; 진수경, 1995; Choi, 2002;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 Edgerton, 2002; Rice et al., 1990; Lopez et al., 1988; Lapsley et al., 1989)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갈등적 독립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 독립은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으나, 사회적 적응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대체로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로부터 기능적, 정서적 및 태도적 독립의 정도는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사회적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심리적 분리를 일반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Rice 등(1990)과 Choi(2002)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즉, Rice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Choi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일반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 반면, Rice 등(1990)과 Choi(2002)의 연구는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예들 들어, 일반적 독립은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대학생활적응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차에 따른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이 두드러졌다. 즉, 남학생의 일반적 독립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분리가 여성보다는 남성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예, Gilligan, 1982)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론과는 달리, 갈등적 독립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Palladino와 Blustein(1994b)의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은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나아가 일반적 독립이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만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는 달리 일반적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간에는 부적 상관(즉, 독립이 아닌 의존)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 발달에 대한 최근의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를 탐색하였지만,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 수준에 있어서의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별로 없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심리적 분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와 관련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적응과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심리적 분리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집단주의 성향자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수준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수준이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주의 성향자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또한 갈등적 독립수준이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주의 성향자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분리는 집단주의 성

향자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특정 영역(즉, 여학생의 경우에서 일반적 독립이 사회적 및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이 지니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일반적 독립이라는 심리적 기제 자체가 대체로 대학생활적응과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결과는 한편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경우 심리적 분리의 수준에 따라 적응수준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으나, 집단주의 성향자의 경우 심리적 분리수준에 따라서도 적응수준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ien(1992)의 지적처럼,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분리-개별화의 개념이 타당하지 않거나 발달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부모와의 갈등적 감정을 다루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남학생의 정서적 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담자는 남자 내담자의 경우, 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어느 정도 다른 태도, 가치, 신념 등을 보여주는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승인 및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지와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신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지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일반적 독립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생활적응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 내담자의 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여자 내담자의 경우에 대학생활의 정서적 적응을 돕기 위해 심리적 분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 문제와 관

런해서 내담자를 조력할 때 내담자가 지니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상담이나 워크샵을 계획할 때 부모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론적 제한점 때문에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가정(부모가 결혼해서 현재 함께 사는 가정)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도 적용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최근에 이혼 가정이나 별거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들에게도 적용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전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에 의해 얻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를 자기-보고식이 아닌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표집을 통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분리와 관계에 있어 성과 문화적 요인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갈등적 독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은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재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은진(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진수경(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한규석(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0, 1-19
- 한성열 · 이홍표(199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 113-129.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Baker, R.,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loom, M. V. (1980). *Adolescent-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ner.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Choi, K. H. (2002).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rol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8-475.
- Chung, Y. E. (1994). Void and non-conscious processing.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 Dien, D. (1992). Gender and Individuation: China and the West. *Psychoanalytic Review*, 79, 105-11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차재호 · 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ue,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91-108). New York: Springer.
- Kalsner, L., & Pistole, M. C. (2003). College adjustment in a multiethnic

- sample: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thnic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 92-109.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ee, H.,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279-293.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Jr.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C. E., Jr.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52-56.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cCurdy, S. J., & Scherman, A. (1996).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th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dolescence*, 31, 307-319.
- Okun, B. F. (1984). *Working with adults: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a).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159-166.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b).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Rodriguez, E. R., & Bernstein, B. L. (1995). *Psychological separation, ethnic identity and adjustment in Chicano/Latinos*.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89 783)
- Schwartz, S. H.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85-119). Thousand Oaks, CA: Sage.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93-99.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s*, 96, 506-529.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ABSTRACT

#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Idiocentrism-Allocentrism

Lee, Hee-Yeong\* · Choi, Tae-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nd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Participants were 442 college students from intact families. Participants completed 1) a brief demographic data questionnaire, 2)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3) two subscales of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nd 4)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Fisher's Z 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1)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justment to college and general independence from parent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of male college students; 2) significant gender

---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independence and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was found; and 3) idiocentrism-allocentrism partial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cluded that conflictual independence plays a important role in the college adjustment of students and gender and idiocentrism-allocentrism

partial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for adolescent theory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college adjustment,  
idiocentrism-allocentrism**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